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9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재성수하단); 말운론
五. 외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은인가!

四.嗚呼悲載 聖壽何短(오호비재성수하단) ;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은고!

K관장의 증언 요약:
몇 번을 정리해 가지고 영모님께 결재를 받았다. 그렇게 얼마를 했는데 갑자기 영모님은 부산의 국민은행 지점장을 만나보고 오라고 하신다. 가서 지점장이 주는 봉투를 받아다가 영모님께 전달을 해드렸다. 몇 번을 이와같이 심부름을 하는데 지점장 말이 박희장님(영모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과거에 오던 사람은 안 오고 관장님만 보낸다고 한다.

1980년 신앙촌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부도를 막기 위해서 특별구판부를 만드시면서 K관장을 서울 구판부 책임자로 발령을 하신다. 이때 가장신앙촌에서는 사모님이 독약을 먹어 영모님을 독살하려고 했다고 하여 내쫓겼고 사모님 동생도 역시 마귀로 몰려 있었다. 다섯 살 일곱 살 짜리 자녀들이 사방을 사먹으려 해도 마귀자식이라고 팔지를 얹아 애들이 울면서 보챤다는 말을 K관장은 전화를 통해 전달받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밤중에 소비조합원들이 몰려와서 장문을 깨고는 연탄재를 던져 넣으면서 마귀새끼가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물을 다 부셨다는 전화도 받았다.

신앙촌이 부도가 났다. 이제는 구판부

도 문을 닫고 부도대책을 세워야 하게 되었다. 신앙촌에서 가족들이 마귀로 몰리니 서울의 부도대책을 세우고 있는 K관장도 역시 마귀라고 하면서 상종을 안 한다. 관장들과 교인들과 소비조합원들이 외면을 하니 K관장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K관장은 영모님께 사의를 표하였다. 그때는 신앙촌과 전도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부서장들에게 지시가 떨어져 있던 때였다. 마귀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K관장은 그냥 책임자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그만 두라고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것같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먼저 사표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랬더니 '잔소리 말고 말은 책임이 아니다' 감당하고 있으라라는 전갈이다.

K관장은 엄한 영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열심히 부도대책을 세워 나갔다. 전 교인들이 외면하고 질시를 하면서 대마귀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데는 참으로 견디기가 힘이 들었다. 참기 힘든 속에서 영모님의 엄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 딱 감고 일을 했다. 약 3년여 만에 부도대책이 거의 끝이 났다. 이제는 정말 할 일도 없고 전 교인들은 상종도 안하니 이제 아발로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였다. 만것번에 사표를 냈을 때는 부도대책이 힘이 드니까 피하여 도망가는 것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 어려운 부도대책을 다 잘 해결하여 끝이 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장문의 서신을 영모님께 올렸다. 이제는 부도대책도 다 끝이 났으

니 할 일도 없고하여 이만 물러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띄운 지 일주일 쯤 되었을 때 기장에서 사람이 왔다. 기장의 영모님 옆에서 부도액 정리에 대한 총집계를 하며 보조를 하던 이모선생(여자)이었다. 그 이 선생은 K관장을 조용한 데서 말하자면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갔다. 다방에 마주 앉은 이 선생은 K관장에게 다짜고짜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관 해산작전을 통해 무고한 죄를 뒤집어써어
측근을 전도관에서 내쫓은 박태선 장로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액의 자금을 K관장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승리제단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K관장의 불순종으로 그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자책의 간증담**

이 K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된다. 내가(하나님) 하는 말을 꼭 명심하라고 하시면서 전화로 전하지를 말고 내가 직접 가서 이 말을 조용히 전하고 오라고 하여 일부러 왔다"고 하는 것이다. 영모님이 전화로 하셔도 되실 일을 일부러 사람을 비밀리에 보내시어 은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전혀 들은 K관장은 참으로 난감했다. 아무도 마귀라고 하여 상종도 안하는 상태에서 또 부도대책도 다 끝이 난 마당에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엄한 영모님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답십리 김일체육

관 이층에 자리잡은 아무도 없는 부도대책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고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일체육관 옆에 신앙촌센터가 있는 것이다. 수많은 시온 사람들이 드나드니 이곳을 피해대녀야만 했다. 몇 달을 순종한답시고 출근을 하였다. 그러나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혼자서 사무실에 매일같이 앉아 있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가 없었다. 김일체육관 옆 건물이 신앙촌센터인데 그 신앙촌센터의 관리소장으로서 김신영 장로가 있었다. 이분을 전도관에서는 벼락부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 김신영 장로를 찾아가서 부도대책 사무실의 열쇠를 맡기고는 그냥 떠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어버렸다. 일주일쯤 후에 김 장로는 K관장이 나타나지를 않으니 기장에서 보고를 하였다. 그랬더니 영모님은 노하시어 K관장의 형을 기장에 불러서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느냐고 야단을 하시면서 이삼 일 내로 찾아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엄명을 내리셨다. 그리고는 박윤명 사장을 불러서 너도 빨리 K관장을 찾아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K관장의 형은 겁을

집어먹고 동생 K관장을 사방으로 찾으며 애를 태웠다.

그러다가 신림동 모인의 가게에서 일을 봐주고 있는 K관장을 박윤명 사장이 사방에 풀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찾았다. K관장의 형과 박윤명 사장은 K관장을 설득하여 간신히 가장신앙촌의 영모님에게로 데리고 갔다. 영모님 앞에 꿇어앉은 K관장은 영모님께 고개를 맞ุด고 있었다. 그런데 영모님은 뜻밖에도 다정한 목소리로 "K관장 왜 철없이 구니.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왜 너는 도망만 가니?"라고 하시면서 "잠시 동안만 인천전도관에 가 있을래?"라고 하신다. 그래서 K관장은 그냥 답십리 사무실에 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영모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마음이 안 놓이셨는지 영모님은 서원식 관장을 불러서 "오늘부터 서관장은 K관장과 같이 행동을 해!"라고 명령을 떨구신다. 그 당시 서관장 등 그 부인들이 신앙촌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서관장이 영모님 앞에서는 '네' 하고 순종할 듯이 하였지만 마음 속은 전연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K관장을 철저히 몰아내려고 하고 있었다. 더욱이 서관장이 서울 답십리까지 가서 K관장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는 전연 생각이 들지를 않았다. 사실 이때에 영모님이 그와 같은 하명은 K관장이 마귀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서관장을 통하여 다들 K관장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뜻이 있었다. 그

러나 서관장이 그와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리가 없었다.

여기까지 증언을 한 K관장은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영모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도 철없이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후에 또 영모님 앞에서 도망을 쳤기 때문이다. 그후 1986년경에 K관장의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모님 하나님 K관장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다는 전언이다. 영모님은 어떤 내용으로 K관장을 쓰실려고 하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으나 그때 영모님은 K관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신 것 같다.

너무나도 죄송한 일이라고 K관장은 연신 말하면서 가슴 속의 아픈 고뇌를 접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K관장의 증언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간추린 것이지만) 적어 보았다.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K관장의 증언내용이 혹시 영모님께서 K관장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승리제단의 구세주님에게 은밀하게 전달을 하실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모든 증언내용을 추리하면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물론 이 내용은 영모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영모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그 많은 자금을 사리사욕을 위해 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영모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하늘의 뜻을 외면하고 거스른 K관장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86회

歌辭總論(가사총론)

非山非野仁富之間 비산비야인부지간
奄宅曲阜玉山邊 엄택곡부옥산변
鷄籠白石平沙福處 계룡백석평사복처
武陵桃源此勝地 무릉도원차승지가
一片福州安淨潔處 일편복주안정결처
誰是不知種桃人 수시부지종도인고
不利山水紫霞島 불리산수자하도를
平沙福地三十理 평사복지삼십리로
南門復起南朝鮮 남문부기남조선에
紅鸞赤霞避亂處 홍란적하피란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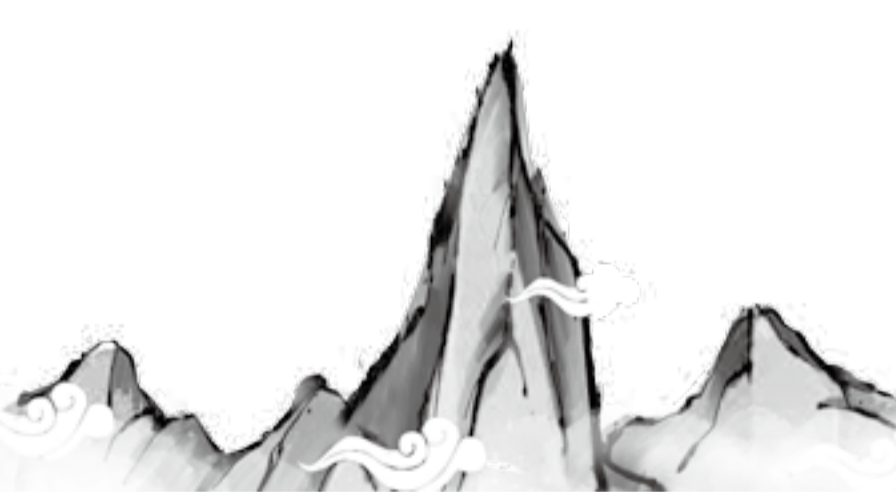
궁을촌은 산도 들도 아닌 인천 부평 부천사이에 있으니 엄택곡부(奄宅曲阜)의 옥산변(玉山邊)과 같은 곳이요 계룡백석 즉 정도령이 소사(=白石백석)에 계시니 부평 소사는 복된 곳이라. 무릉도원(신선 세계)은 하나님 마귀를 이기신 곳이요 비록 한 조각의 작은 고을이지만 복된 곳이요 평안하고 정결한 곳인데 누가 있어 무릉도원의 복숭아를 심는 곳을 알리요 세상의 산이나 물(지리상의 심승지)에는 목숨을 보전하는 데 이로움이 없으니 찾지 말라. 목숨을 보전하는 데 이로운 자 하도(紫霞島)는 부평 소사에 있으니 복된 땅이니라. 남대문에서 삼십 리 떨어져 있으며 다시 일어나는 남조선에서 봉황새가 붉은 노을에 깃드는 이곳이 말세의 피란처이니라.

自古只今此世 자기지금차세까지
儒佛仙出名哲 유불선출명철들이
參禪性覺道通 참선성각도통으로
肉死神生重生法 육사신생중생법과
河洛運去來世事 하락운거래세시를
先覺無疑知之故 선각무의지지고로
中天弓箭先天回復 중천궁부선천회복
四時長春新世界 사시장춘신세계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유불선의 뛰어난 철인들이 참선을 통하여 본성을 깨닫고 도통하여 육사신생(肉死神生) 즉 옛사람의 몸을 벗고(나라는 의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 영생하는 중생법과 하도낙서의 운이 오고 감에 따라 세상사의 변화를 선각자들은 의심 없이 아는고로 말세의 피란처를 은연중에 증거 하였느니라. 중천운의 십승 진리에서 나온 감로해인으로 사망의 신인 마귀를 죽임으로 예탄동산(하늘나라)이 회복되어 사시장춘의 불사영생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느니라.

自古及今預言中 자기지금예언중에
多數秘文 다수비문만치미는
孔孟詩書儒士 공맹시서유사들이 시
西瓜外猿 不味內 서과외시불미내라
儒佛運去儒佛來 유불운거유불래니
何佛去而何佛來 허불거이허불래오
兔水火能殺我 토장수화능살이오

감로해인으로 마귀를 죽임으로써 천국이 회복되어 불사영생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느니라



斥儒尚佛是從金牛 척유상불시종금우
似人不入從金之理 사인불인종금지리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언서 가운데 비결문(秘訣文)이 많지만 공자, 맹자의 사서삼경을 공부한 선비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여 글 속의 참뜻을 몰랐느니라. 말번시대에는 유불(儒佛)의 운이 다하여 가고 새로운 유불의 운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부처가 가고 어떤 부처가 오는가? 소두무족(小頭無足=뺨=마귀=화火)은 어느 운에 당하는가? 토기(卯卯)가 들어올 때 물로 불로 능히 나를 죽이는 운 즉 음란과 쾌락의 풍조가 세상에 횡행하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할 때 그리고 병마가 덮쳐 능히 나를 죽이는 운을 당하나라(마귀의 장난으로 죽는다). 유(儒)를 배척하고 불(佛)을 숭상한다함은

금운으로 오신 엄마와 같은 생 미륵불을 따르는 것이며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생 미륵불을 따르는 것이 금운을 따르는 이치가 됨을 말하는 것이니라.

東西合運十勝出 동서합운십승출
無無中有有中無無 무무중유유중무무
無而爲化天運 무이위화천운으로
雪冰寒水解結 설빙한수해결되고
萬國江山春花茂 만국강산춘화래라
尙佛來運連數 상불래운운수조타
三聖合運一人出 삼성합운일인출을
末世愚盲蠢驥驢 말세우맹준고몽롱
視國興亡如草芥 시국흥망여초개로
父子爭財夫妻離婚 부자쟁재부처이혼
情夫視射寡婦生產정부사사과부생산
淫風大行有夫之妻 음풍대행유부지처
背夫배부리니 末世말세로다

세계로 변화된다는 뜻) 미륵불을 숭상하는 운이 오니 그 운수가 참으로 좋구나. 삼성(三聖) 합일된 한 사람이 나오시니 그분이 바로 미륵불이로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앞을 못보고 꾸물거리는 장남같이 흐리멍덩하여 나라의 흥망을 초개같이 여기느니라. 부자(父子)간에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부부(夫婦)가 이혼을 쉽게 하고 정부(情夫)를 탐하는 눈으로 보고 과부가 아이를 낳는 등 음란한 풍조가 크게 유행하느니라. 유부녀가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니 말세로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고서연구가 박명하 선생님의 유튜브 강연 안내



동영상 재생목록 '고서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